

청소년의 학년 증가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

고홍월(高虹月)**

황재원(黃載元)***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공격적 비행과 관련된 변화 패턴과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격적 비행 경험이 있는 43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학년변화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우선, 청소년기 공격적 비행의 변화 양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가장 높은 비행 정도를 보였고, 그 후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비행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변인은 성적만족도,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이며, 부모변인으로는 감독, 애정, 과잉기대, 합리적 설명, 방임이고, 학교변인으로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이었다. 셋째, 유의하다고 확인된 변인 중에서 성적만족도,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는 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고, 성적만족도는 비행 변화가속도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비행, 공격적 비행, 비행의 변화, 비행 변화의 영향 요인,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CNU 학술연구비의 의해 지원되었음.

** 제1저자, 충남대학교 부교수

*** 교신저자, 군산대학교 조교수(hjw504@kunsan.ac.kr)

I. 서론

비행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왔다. 비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 비행화 과정, 그리고 탈비행 과정과 그 개입 요인 등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법학, 범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어 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적 접근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왔다. 이와 같이 연구 주제나 학문 분야의 다양성을 봤을 때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 현실 측면에서든, 학문적 연구 측면에서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해체, 사회적 기능 약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서 저연령화, 재범화, 학생 비행 증가, 여성 청소년 비행 증가(최은영 외, 2014) 등 특성이 보이며 그 중에서도 강력범, 폭력범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준호 외, 2015). 청소년기 비행과 성인기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공격성이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기의 공격적 비행이 성인기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Gottfredson, & Hirschi, 1990; Tremblay, 2014)을 종합해보면 공격적 비행 행동은 범죄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격적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입의 초점, 즉 공격적 비행 행동 감소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금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오선정, 2017)에서 중학생 중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에 비해 3학년 때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 비행의 변화 추이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변화 이면에 비행 감소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러한 변인을 어떻게 교육, 교정, 상담에서 활용할지 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 비행이나 공격성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은 거시적으로 사회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과 미시적으로 개인의 기질, 심리적 발달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나뉜다.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사회 계층,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가족의 구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경제적, 제도적 수단의 정도(Merton, 1938, 김준호 외 2015에서 재인용),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유대 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은 부모, 학교, 친구, 교사 및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비행의 억제 요인(Hirschi, 1969)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위문화, 비행하위문화(김준호 외, 2015)와 같은 계층

또는 개별, 집단적인 비행 친구와의 접촉(Sutherland, Cressey, & Luckenbill, 1992) 등이 사회 환경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비행의 보호요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노력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이 있는 동시에 비행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그 특징이 함께 변화하는 만큼, 그 변화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의 학년 증가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비행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 및 공격적 비행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일탈행동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규범에서 일탈된(벗어난) 행동”을 말한다(김준호 외, 2015). 사회적 규범의 범주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청소년 비행을 논할 때는 대부분 교육적, 도덕적, 법률적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뜻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는 지위비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비행, 심지어 위법 행위까지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위비행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흡연, 음주, 반항, 교칙 위반, 비행 집단과 접촉 등 행동을 의미한다(Senna & Lawwy, 2000). 공격적인 비행은 지위비행에 비해 타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공격적 비행에는 언어적·신체적·관계적 공격 행동, 싸움, 성비행 등이 있으며, 그 중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축법, 범죄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김준호 외, 2015). 비행 또는 범죄행위가 심각한 경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 지위비행과 공격적 비행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그 중에서도 공격적 비행이 보다 피해를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학교폭력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처럼 청소년기 비행을 예방하고 대처함에 있어서 공격적 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이 공격적 비행의 주요 특징인 만큼 청소년의 공격성의 양상과 관련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

격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많이 논의되는 방법으로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형태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외현적 공격성의 표현 형태로는 때쓰기, 짜증내기 등과 같은 수준의 행동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내재적 공격성은 절도, 손괴와 같은 이탈 행동으로 표출된다. 공격성 표출에 대해 또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 Nelson, 2002). 외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심리적 안녕을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이 사회적으로 수용 받으려는 감정을 손상시키거나 또래관계를 조작하고 손해를 끼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적 행동 및 사고를 의미한다. 사회적 소외, 거부, 소문, 이간질 등의 행동으로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크게 구분한다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과 사회환경적 영향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긍정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학교만족도나 성적 만족도(이현철, 김정식, 최성보, 2016) 등이 있다. 개인의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이상균, 2008; Gottfredson & Hirschi, 1990)와 자녀의 애착유형(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 2007),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부모의 영향, 사회적 학습 등이 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의 이론으로는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환경적인 억제요인과 비행 촉발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는 이와 같은 이론적 가정, 선행연구 결과 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는 이론들은 결국 비행이라는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우선 비행 청소년의 개인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가족관계 등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의 환경, 학교 및 친구 등 측면에서 그 원인과 영향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 개인 변인, 부모라는 환경적 변인, 학교 환경 변인을 구분해서 서술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변인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 주로 청소년의 공격적 비행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격적 비행 중심의 영향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개인 특성에 대해서는 성별, 신체적 특성, 심리적 기질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다. 주요 개인

변인에서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 성향, 호르몬 수준, 뇌신경계의 문제, 신경내분비계의 문제 등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준호 외, 2015). 개인변인 중 기본적으로 성별과 관련된 변인은 비교적 명확히 비행행위의 성차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 청소년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성이 높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현적인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심리적인 변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낮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혼란, 낮은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비행 행위와 상관이 높다고 한다(김미선, 2014). 특히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 같은 변인을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비취 본다면 학교에서의 성적,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착,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정도, 학교만족도 등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오윤심, 최은영, 2012; 정소희, 2009).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소속감, 성적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등은 학생 또는 학습활동에서 오는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학교에서 느끼는 공동체의식, 성적 만족도 또한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높은 상관이 있다. 학교에서의 소속감, 리더십, 학업활동과 공격성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공격성으로 인해 학교적응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강지훈, 2004; 오윤심, 최은영, 2012). 생물학적 원인에서 출발하든 심리적 문제 때문이든 개인에게 나타난 충동성, 공격성, 반사회적 성향 등은 비행의 중요한 영향 변인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이다.

청소년의 공격적 비행을 설명하는 부모 및 가족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모의 학대나 폭력적 행위, 부부간의 갈등 등이 있다(임진섭, 김명일, 한은영, 2009; Demuth & Brown, 2004; Horwitz, Hill, & Cheryl, 2011).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기부터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양육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 양육자이기 때문에 더욱 가까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은 기본적으로 지지인가 통제인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나 행동은 자녀에게 수용, 온정, 지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김영민, 임영식, 2012; Neiley, 2005).

결국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수용적 태도,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를 취할 때 자녀가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분노, 공격적 태도와 같은 부정적 감정 해소한다. 이런 경우 공격성이 낮아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등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양혜진, 2005; 최창욱, 2012). 반면,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나 행동은 자녀에게 지시와 요구, 훈육, 강제성,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 외면, 거부, 무시, 과잉보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한다(이선영, 2014; 전주람, 김순옥 2012).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며 자녀의 외현화된, 또는 내면화된 공격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좌절시키면서 공격행동을 자극하게 된다(김미원, 박영신, 2012). 즉, 부모의 통제, 학대, 거부, 무시 등 행위는 자녀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비난과 공격을 하는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게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감정표현을 억제하고 자율성을 무시할 때 자녀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 또는 수동적 공격성을 표출한다.

비행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학교라는 거대한 환경 속에는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생으로써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등 여러 관계적, 행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보면 부모와의 독립을 추구하고, 친구 맺기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발달적 특성을 보면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은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의 규범 준수 등이 학교생활에서의 주요 경험이다. 학생들 중에서 적응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적인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이며 또래관계에서 수용 받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반면,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고, 거부와 배척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식, 2012).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특히 적대감, 공격적 특성을 보이며, 분노 조절, 적절한 감정 조절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공격성을 나타냈다(김광수, 2003; 진주희, 1998).

결국 청소년의 공격성은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보호요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공격성과 비행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과 변화의 시기이며,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이든, 부정적인 문제행동의 변화이든 변화에 특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문제 행동인 공격적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특정 시점의 요인들이 그 후의 문제 행동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청소년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입의 시점과 개입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에 발달에 개인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변인이든 환경적 변인이든 지속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청소년 공격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패널’자료 중에서 비행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제3차(초6, 2012년) 자료부터 제7차(고1, 2016년) 자료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¹⁾. 제3차 조사 시기에 전체 조사대상자는 2378명이었지만 그 후 한 번이라도 공격적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43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282명(64.7%), 여자가 154명(35.3%)이었다.

2. 연구변인의 측정

연구 변인에 대한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관찰변인인 공격적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KCYPS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14가지 비행항목 중에서 외현적 공격적 비행 항목을 각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7가지 항목을 선별하였다²⁾. 그런 다음 각 항목별로 비행을 했을 경우 1점을 부여하여(예 =1, 아니오=0) 각 항목들 값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최고점수는 7점이고 최하점수는 0점이 된다.

예측변인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격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삶의만족도, 성적만족도, 공동체의식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설정하였다. 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표 1>과 같다.

- 1) KCYPS는 ‘초4패널’과 ‘중1패널’을 같이 운영 중인데 먼저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2시기에 비행정도가 가장 높았고 학년이 거듭될수록 비행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중1패널’은 중2부터 비행항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중2시기가 가장 비행을 많이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그 전 시기에 비행을 더 많이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비행항목을 조사한 ‘초4패널’을 연구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2) 14개 비행항목 중에서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도박, 성관계 등 다양한 비행행동이 많은데 그중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심신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공격적 비행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별한 항목들의 항목번호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⑤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⑥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⑦ 껴짜움, ⑧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⑨ 다른 사람 협박하기, ⑩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빼기(뺑뜨기), ⑬ 성폭행이나 성희롱.

<표 1> 예측변인 및 주요 척도

변인	변인 내용 및 측정도구	신뢰도 α	
개 인 변 인	자아존중감	Rog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에서 재인용). 10문항	.817
	자아정체감	송연옥(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	.539
	삶의만족도	김신영 외(2006)의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 3문항	.825
	성적만족도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만족하는 편이다 4=매우 만족한다	-
	공동체 의식	권혜원(2004)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 4문항	.780
부모 양육태도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총43문항)와 김세원(2003)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 하위요인으로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가 있음. 29문항	.742	
학교생활 적응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위요인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있음. 25문항	.885	

3. 분석방법

학년증가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변화양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연도별로 공격적 비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변화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종단적으로 변화하는 공격적 비행의 변화양상에 어떤 연구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중에 하나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사용하였다. 종단 자료를 통해서 어떤 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성장을 살펴볼 때, 특히 그러한 변화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잠재성장모형은 가장 적절한 모형 중 하나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고, 종단자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측치를 포함한 케이스를 제거하는 listwise나 pairwise 방법 대신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방법은 한 변수값이 무선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listwise나 pairwise 같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공격적 비행의 변화양상 분석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 먼저 관찰변인과 예측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를 <표 2>와 <표 3> 각각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술통계치 토대로 공격적 비행의 변화양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표 2> 관찰변인 및 예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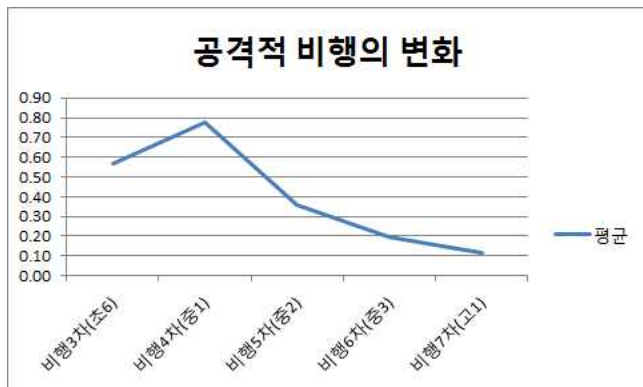
변인		평균	표준편차	N		
관찰변인	공격적 비행 3차 년도(초6)	전체	.570	.878	428	
		남	.418	.752	265	
		여	.843	1.014	153	
	공격적 비행 4차 년도(중1)	전체	.777	1.077	413	
		남	.815	1.148	272	
		여	.709	.935	148	
	공격적 비행 5차 년도(중2)	전체	.356	.749	418	
		남	.489	.850	270	
		여	.110	.409	146	
	공격적 비행 6차 년도(중3)	전체	.193	.606	409	
		남	.263	.701	255	
		여	.058	.313	139	
공격적 비행 7차 년도(고1)	전체	.112	.368	392		
	남	.141	.421	236		
	여	.058	.235	137		
개인변인	자아존중감	3.003	.459	413		
	자아정체감	2.620	.392	413		
	삶의만족도	3.079	.666	413		
	성적만족도	2.450	.767	413		
	공동체의식	2.918	.597	413		
예측변인	부모양육 태도	감독	3.152	.593	413	
		애정	3.087	.609	413	
		비일관성	2.433	.670	413	
		과잉기대	2.637	.606	413	
		과잉간섭	2.409	.643	413	
		합리적 설명	2.917	.627	413	
		방임	1.831	.541	413	
		학대	1.785	.720	413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2.701	.606	413
			학교규칙	2.845	.592	413
교우관계	3.040		.448	413		
교사관계	2.817		.691	413		

<표 3> 관찰변인 및 예측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2	-.185**										
3	-0.083	0.093									
4	-0.034	0.039	.196**								
5	-0.069	-0.041	0.051	0.068							
6	-.103*	-0.008	-0.035	-0.063	-0.055						
7	-0.046	-0.033	-0.021	0.010	-0.005	.461**					
8	-.148**	-0.087	-0.012	-0.004	-0.022	.574**	.272**				
9	-0.075	-0.081	-0.003	0.072	-0.049	.239**	.150**	.173**			
10	-0.052	-.121**	-.107*	-0.097	-0.082	.281**	.181**	.318**	0.027		
11	-0.080	-.127**	-0.057	-0.072	-0.041	.215**	.151**	.235**	.196**	.280**	
12	0.003	-.139**	-0.083	-0.041	-0.051	.385**	0.085	.458**	0.078	.374**	.433**
13	-.119*	-0.006	-0.034	0.016	-0.078	-.203**	-.183**	-.107*	-0.041	0.012	-0.018
14	-.112*	-0.083	-0.044	-0.033	-0.039	-0.014	-0.073	.118*	-0.025	.173**	.224**
15	-.158**	0.028	0.008	-0.020	0.049	-.152**	-.133**	-0.078	-0.078	-0.006	0.051
16	-0.050	-.174**	-.185**	-.125*	-0.042	.308**	0.092	.356**	0.090	.368**	.378**
17	0.046	0.091	0.058	-0.002	.113*	-.328**	-.138**	-.334**	-0.040	-.369**	-.405**
18	-0.075	0.076	0.046	-0.005	-0.002	-.312**	-.164**	-.223**	-0.069	-.112*	-.153**
19	-0.034	-.221**	-.104*	-0.067	-0.065	.362**	.331**	.288**	.223**	.398**	.350**
20	-0.039	-.224**	-.113*	-0.078	-0.001	.245**	.107*	.238**	.142**	.442**	.329**
21	-0.012	-.182**	-.101*	-.178**	-0.084	.405**	.277**	.363**	.105*	.435**	.372**
22	-0.053	-0.092	-0.054	-0.088	-0.069	.214**	0.064	.283**	0.019	.355**	.25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	-.182**										
14	0.092	.460**									
15	-.159**	.584**	.666**								
16	.695**	-.103*	.117*	-0.026							
17	-.600**	0.083	-.179**	0.033	-.536**						
18	-.362**	.389**	.284**	.429**	-.294**	.214**					
19	.404**	-.135**	.107*	-.118*	.426**	-.372**	-.182**				
20	.302**	-0.031	.126*	-0.031	.353**	-.279**	-.124*	.553**			
21	.376**	-0.061	.102*	-0.057	.325**	-.391**	-.182**	.492**	.535**		
22	.349**	-0.027	0.093	-0.007	.270**	-.307**	-.151**	.404**	.449**	.376**	

* $p < .05$ ** $p < .01$

1. 공격적비행3차 2. 공격적비행4차 3. 공격적비행5차 4. 공격적비행6차 5. 공격적비행7차 6. 자아존중감 7. 자아정체감 8. 삶의만족도 9. 성적만족도
10. 공동체의식 11. 감독 12. 애정 13. 비밀관성 14. 과잉기대 15. 과잉간섭 16. 합리적 설명 17. 방임 18. 학대 19. 학습활동 20. 학습규칙 21. 교우관계 22.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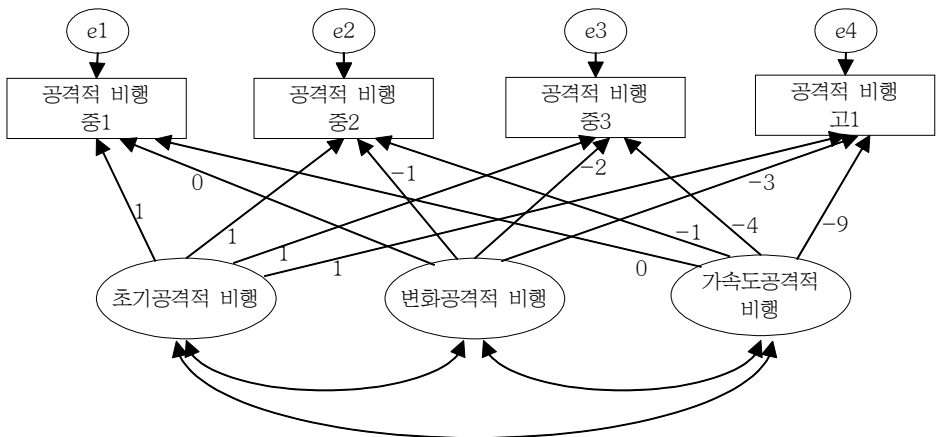


[그림 1] 학년에 따른 공격적 비행의 변화 양상

[그림 1]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부터 서서히 공격적 비행이 증가하여 중1시기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변화의 그래프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공격적 비행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여러 주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 요인들이 공격적 비행의 변화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에 투입되는 예측변인들에 4차년도(중1)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관찰변인은 4차년도 이후의 자료 즉 4차(중1), 5차(중2), 6차(중3), 7차(고1)년도 공격적 비행을 사용하였다.

2. 변화모형 설정

연구의 목적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공격적 비행의 정도에 관심 연구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데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2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과연 공격적 비행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화모형(change model)을 설정한 다음 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아야한다. 그런 다음 변화모형 속에 관심 연구변인을 포함시킨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문수백, 2013). 본 연구의 변화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공격적 비행의 변화모형

[그림 2]를 보면 변화의 패턴이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형변화모형을 사용할 수 없고 비선형변화모형을 사용해야하며 이러한 비선형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차함수 모형을 사용하였다. ‘초기공격적비행’ 잠

재요인이 4개의 관찰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는 학년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모두 1로 고정하였다. ‘변화공격적비행’ 잠재요인은 변화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1차함수 모형을 추정해야하므로 비표준화계수를 0, -1, -2, -3로 고정하였다. 여기서 공격적비행의 수준은 학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부여하였다. ‘가속도공격적비행’ 잠재요인은 기울기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가속도라고 해석하며 2차함수 모형으로 추정해야하므로 비표준화계수를 0, -1, -4, -9로 고정하였다.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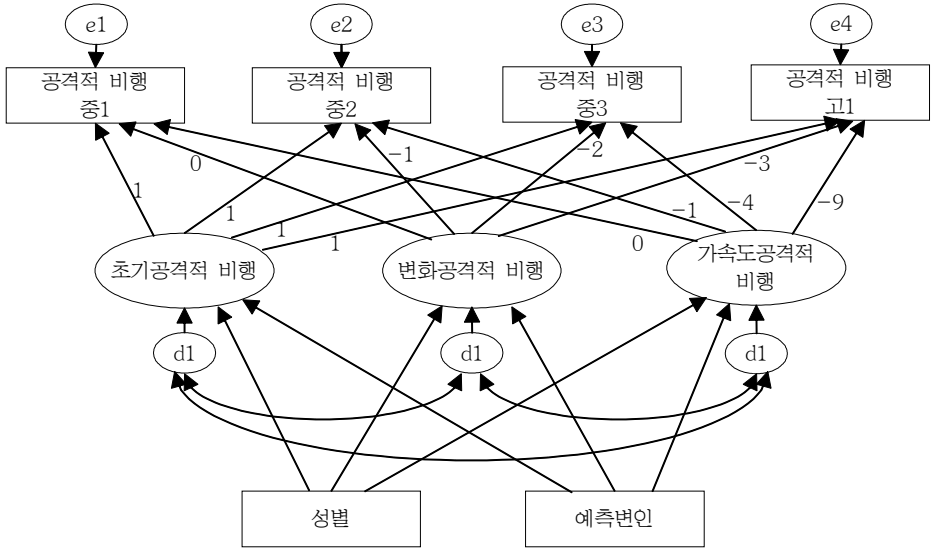
<표 4> 변화모형 검증

모형	χ^2	df	p	NFI	CFI	RMSEA
변화모형	1.682	1	.149	.926	.947	.040

<표 4>를 보면 χ^2 값이 1.682이고 $p=.149$ 이므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수용하므로 본 변화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 CFI값 모두 .9를 넘고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값도 .040으로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3. 예측모형의 설정 및 검증

앞서 변화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공격적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예측변인들을 본 변화모형에 추가하여 예측모형[그림 3]을 설정하였다. 예측변인들은 <표 2>에 있는 변인들을 차례대로 투입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표 2>에서 공격적 비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리고 공격적 비행 변화에 영향을 미친 예측변인들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여기서는 <표 2>의 여러 예측변인들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 공격적 비행의 예측모형

<표 5> 공격적 비행 변화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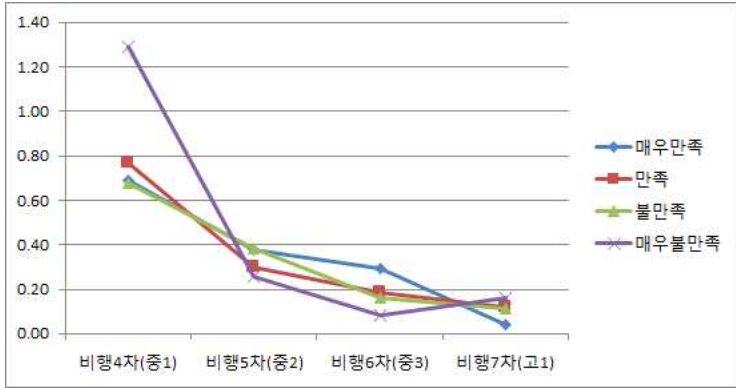
예측변인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성적 만족도	성적만족도 → 초기	-.134	-.314	.065	-2.076	.038	
	성적만족도 → 변화	-.186	-.424	.080	-2.332	.020	
	성적만족도 → 가속도	.050	.404	.022	2.285	.022	
$\chi^2=5.294, df=3, p=.152, NFI=.919, CFI=.949, RMSEA=.042$							
개인 변인	삶의 만족도	삶의만족도 → 초기	-.173	-.336	.077	-2.242	.025
	$\chi^2=4.713, df=3, p=.194, NFI=.950, CFI=.977, RMSEA=.036$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의식 → 초기	-.214	-.368	.083	-2.592	.010
	$\chi^2=4.757, df=3, p=.190, NFI=.935, CFI=.966, RMSEA=.037$						
부모 양육 태도	감독	감독 → 초기	-.200	-.326	.084	-2.398	.016
	$\chi^2=5.666, df=3, p=.129, NFI=.915, CFI=.942, RMSEA=.045$						
부도 양육 태도	애정	애정 → 초기	-.257	-.459	.081	-3.168	.002
	$\chi^2=4.750, df=3, p=.191, NFI=.938, CFI=.968, RMSEA=.037$						
합리 적 설명	과잉 기대	과잉기대 → 초기	-.171	-.303	.083	-2.064	.039
	$\chi^2=4.767, df=3, p=.190, NFI=.939, CFI=.969, RMSEA=.037$						
방입	합리적 설명	합리적설명 → 초기	-.304	-.563	.078	-3.905	.000
	$\chi^2=4.700, df=3, p=.195, NFI=.947, CFI=.975, RMSEA=.036$						
방입	방입	방입 → 초기	.210	.344	.092	2.293	.022
	$\chi^2=5.207, df=3, p=.157, NFI=.925, CFI=.955, RMSEA=.041$						

학교 생활 적응	학습 활동	학습활동 → 초기	-.377	-.613	.080	-4.703	.000
		학습활동 → 변화	-.261	-.410	.101	-2.588	.010
	$\chi^2=5.164, df=3, p=.160, NFI=.939, CFI=.966, RMSEA=.041$						
	학교 규칙	학교규칙 → 초기	-.378	-.597	.082	-4.594	.000
		학교규칙 → 변화	-.258	-.387	.104	-2.492	.013
	$\chi^2=5.715, df=3, p=.126, NFI=.931, CFI=.956, RMSEA=.046$						
교우 관계	교우관계	교우관계 → 초기	-.354	-.403	.110	-3.210	.001
		$\chi^2=9.201, df=3, p=.027, NFI=.895, CFI=.906, RMSEA=.069$					

<표 5>를 보면 대부분의 예측변인들이 ‘초기공격적비행’에만 영향을 미치고 ‘변화공격적비행’이나 ‘가속도공격적비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변인이 추가적으로 ‘변화공격적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만족도 변인만 유일하게 ‘가속도공격적비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성적만족도,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초기에 청소년들이 비행을 덜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감독하고, 애정을 보이고, 과잉기대를 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때 자녀들은 초기에 비행을 덜하며 방임을 할 때는 비행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잘 따라가고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수록 초기에 비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화공격적비행’에 미치는 변인들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을 잘 따를수록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감소률(기울기)이 덜함을 알 수 있다. ‘가속도공격적비행’에는 성적만족도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의 변화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적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학년별로 공격적비행의 평균을 <표 6>와 같이 구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4]와 같다.

<표 6> 학년증가에 따른 성적만족도 4집단별 비행 평균

집단	중 1	중 2	중 3	고 1
매우만족	.69	.38	.30	.04
만족	.77	.30	.18	.12
불만족	.68	.39	.16	.12
매우불만족	1.29	.26	.08	.16



[그림 4] 성적만족도에 따른 비행 변화 양상

[그림 4]와 같이 성적만족집단과 성적불만족집단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분명한 비교를 위해서 매우만족집단과 매우불만족집단을 비교해보면 매우만족집단이 매우불만족집단보다 변화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것을 알 수 있고, 기울기의 변화도 매우만족집단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더 커지는데 반해서 매우불만족집단은 기울기가 더 줄어들고 심지어 고1이 되어서는 기울기가 역전이 되어 오히려 비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주요 예측변인으로 여겨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부모양육태도중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그리고 교사관계는 공격적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몇 가지 중요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공격적 비행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다 점차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조금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초 6에서 중 2 사이에 다른 시기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다른 시기보다 공격적 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인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 비행에 대한 예방, 대처를 위한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 시점 및 지속성 등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공격적 비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이 중요한 변인인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개인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등이 모두 청소년기 초기의 공격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와 비슷하게 공격적 비행, 공격적 행동에 영향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한 영향변인이며 이에 대해 영역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변인에서는 삶의 만족도, 성적만족도, 공동체의식이 초기 공격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삶의 만족도, 성적만족도, 공동체의식이 낮은 학생일수록 공격적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성적만족도는 공격적 비행의 변화율 및 변화 가속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공격적 비행의 특성이나 변화 양상을 보면 청소년기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는 변인이 매우 강력한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입하고 학생으로써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에서의 생활이 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성적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역할에 대해 학업 성적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사회적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정익중, 2009)으로 작용한다.

종합해보면 삶의 만족도, 성적 만족도,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면서 사회적 유대와 관련이 있는 변인이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설명하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과 같은 요인(Hirschi, 1969)은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활동 수준을 어떤지 등에 따라 비행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설명하는 바를 비춰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유대이론의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적만족도는 학업적응, 더 나아가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민병수, 1991)이므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교육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만족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열식 성적 평가 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 역할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에서의 개인 간 비교보다 개인 내 성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 감소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은 비행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아직 정체감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본다. 이에 대해 향후 연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공격적 비행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감독, 애정, 과잉기대, 합리적 설명이 공격적 비행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공격적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많은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처럼(이상균, 2008, 이성식, 2007, Vitaro, Brednigen, & Tremblay, 2000) 부모가 자녀를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감독, 훈육하는 것은 공격적 비행을 억제 또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에게 애정을 쏟고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기 등과 같은 행동은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 부모의 과잉기대를 받는 자녀가 공격적 비행을 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대해 인식시키고, 윤리적, 제도적 범주를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과잉기대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기대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태도인데,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게 되는 과도한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보다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도 본 연구결과를 보면 방임보다는 공격적 비행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방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자기통제감 형성에 부정적인 경향을 미치고, 비행 친구를 교제할 가능성을 높이는 등과 같은 결과(Gottfredson & Hirschi, 1990)를 초래해서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 미치는 여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손석한 외, 2001, 정소희, 이경희, 2016). 이 점에 대해 향후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들을 통해 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적응 측면을 본다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모두 초기 공격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은 공격적 비행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우관계는 초기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후의 변화나 가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친구 변인은 청소년기 중요한 영향 변인이므로 비행 진입 및 비행 감소에 모두 중요한 변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 비행을 하게 될 때도 비행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있지만 비행친구와 접촉한다고 해서 꼭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행친구에 대한 태도와 비행친구로부터 영향 받는 여부가 중요하다(이은주, 2008; Brednigen, Vitaro, & Bukowski, 2000). 하지만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교우관계는 비행 감소에 영향 미치는 요인 중에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은주, 2012; Simons, Wu, Conger, & Lorenz, 1994; Thornberry, 1987). 즉, 교우관계의 질과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 비행 예방과 대처에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초기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중요한 타자이지만 부모나 친구 관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 변인(Thornberry, 1987)이라고 하

지만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다른 매개나 조절변인을 통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에 대한 가설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변인이 공격적 비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 가속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성적만족도가 유일했다. 특히 성적 만족도 수준에 따라 공격적 비행의 변화 패턴을 비교할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성적을 매우 만족하는 청소년들보다 매우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행 감소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기울기의 변화도 성적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집단이 더 컸지만 그러나 고1 때는 비행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 패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학생 역할을 본다면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측면에서 암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비행을 중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정익중, 2009)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삶의 만족도, 성적 만족도와 같은 의미이다. 즉, 생애 발달 단계에서 생애 역할에 대해 스스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사회적 규범 속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Thornberry, 1987)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에서 사회유대이론을 지지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의 공격적 비행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초기 대처로는 여러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각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공동체 의식,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똑 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 학교환경과 같은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과 환경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초기 발견,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개입을 개인, 부모, 학교 등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라는 거대한 교육적 환경 속에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개입, 학교규칙 준수와 같은 사회화 과정, 건전한 교우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초기와 향후 비행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비행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에서 부모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초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특성상 주요 특정 시점의 예측변인이 관측변인의 변화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예측변인과 관찰변인이 시간에 따라 동시에 변하면서 서로 시기에 따라 주고받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예측변인들을 소수로 한정해야하는

데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밝혀진 의미 있는 변인들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변인들을 중심으로 추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한계로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패널자료의 한계로 인해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 반면에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고 결과 해석에서도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성과를 향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 감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형태와 과정을 거쳐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적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매우 빠르게 비행 행동을 줄였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다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하여 보다 전반적으로 공격적 비행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비행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지훈(2004).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권혜원(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17(3), 393-410.
- 김미선(201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미원, 박영신(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우정특성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171-190.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민, 임영식(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 의존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12).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2015). **청소년비행론 3판**. 청목출판사.
- 문수백(2013).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은식(2012). 청소년이 지각한 인간관계 및 심리적 변인과 학교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0(4), 483-501.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민영숙, 박원모, 천성문, 이영순 (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3(2), 115-140.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4.
- 송연옥(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양혜진(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분노형태. **사회과학논문집**, 24, 157-177.
- 오윤심, 최은영(2012).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6(2), 15-29.

- 오선정(2017). 사회적자본과 청소년 비행. **2017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08-325.
- 이상균(2008).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조기·후기비행 진입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4**, 249-282.
- 이상문(2017). 자녀들의 공격성과 부모의 강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1(3)**, 77-101.
- 이선영(2014).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양육주체와 양육태도의 설명 효과비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이성식(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정보화 정책**, **14(3)**, 3-15.
- 이은주(2008).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 지속효과와 최신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1)**, 243-267.
- 이은주(2012).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비행여부와 비행수준을 구분한 이원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5.
-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이에 대한 중단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2)**, 125-147.
- 임진섭, 김명일, 한은영(2009).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범죄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4)**, 29-69.
- 전주람, 김순옥(2012). 초등학교 고학년 남아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01-120.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소희(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31-64.
- 정소희, 이경희(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13-342.
- 정의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최은영, 양종국, 김영근, 이윤희, 김현민 (2014). **청소년 비행 및 약물중독 상담 2판**. 학지사.
- 최창욱(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미경(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 (2000). Stability and variability of adolescents' affiliation with delinquent friend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Social Development* 9(2), 205-22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 Nelson, D. A. (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599-607.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2.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rwitz, A. G., Hill, R. M., & Cheryl, K. (2011). Specific coping behaviors in relation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4(5), 1077-1085.
- Neiley, R. E. (2005). Parenting style: Thei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resiliency. Ph. D.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nna, J., & Lawwy, S.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7th ed)*, Stanford(CT): Wadsworth.
- Simons, R. L., Wu, C., Conger, R. D. & Lorenz, F. O. (1994). "Two routes to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the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32, 247-276.
- Sutherland, E. H., Cressey, D. R., & Luckenbill, D. F. (1992). *Principles of criminology (11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4), 863-892.

- Tremblay, R. E. (2014).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during childhood", In Gibson, C. L. & Krohn, M. D. (Eds.) *Handbook of life-course criminology*, 3-20. New York: Springer.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2000). Influence of deviant friends on delinquency: searching for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4), 313-325.

* 논문접수 2018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9월 7일 / 2차 심사 2018년 11월 5일 / 게재승인 2018년 12월 7일

* 고흥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gaohy@cnu.ac.kr

* 황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직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jw504@kunsan.ac.kr

Abstract

The Aggressive Delinquency Change and Influencing Factors as Adolescent Grade Increases*

Gao, Hong-yue**

Hwang, Ja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 pattern of the aggressive delinquency of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s change. This study analyzed five-year(from 3th to 7th)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Survey(KCYPS). The study subjects are 436, and the Latent Growth Model(LGM)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pattern of change of the aggressive delinquency showed the aspect of increase until the first year in middle school and showed the aspect of decrease after that. Seco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change of the aggressive delinquency were the satisfaction on academic grades, the satisfaction on life, and the community spirit in the individual variables. In terms of the parental variables, the supervision, the affection, the excessive expectation, the rational explanation and the neglect were effective. The learning activity, the school rule and the school friendship were significant in school variables. Third, among significant variables, the satisfaction on academic grades, the learning activity and the school rule influenced the rate of change of the aggressive delinquency and particularly the satisfaction on academic grades influenced the acceleration of change of the aggressive delinquency. Lastly, conclus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Key words: juvenile delinquency, aggressive delinquency,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ange, latent growth mode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